# 금남로 5·18 전야제 3년만에 부활

## 17일 인원 제한 없이…MZ세대 전시회 등 전국 100여개 행사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풍성하게 열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5·18 전야제도 3년 만에 광주 금남로에서 인원 제한없이 진행된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상임행사위원장 정동년)는 4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를 소개했다.

기념행사는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 곳곳에서 100개 이상 펼쳐진다.

17일 오후 금남로에선 전야제,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선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이에 앞서 주말인 14일 오후 금남로에선 5·18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치러진다. 대동정신을 잇는 주먹밥 나눔 행사와 헌혈행사, 5·18을 다룬 학술대회, 토론회도 5월 한 달간 곳곳에서 진행된다.

MZ세대를 위한 전시회도 있다. 17~29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리는 '청년 특별전 We play'다. 주최측은 5·18 당시 상황을 전시장에서 재현하고 그날의 현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MZ세대를 겨냥한 전시회라고 밝혔다. 광주 연극인들이 만든 5월 연극 3편과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가 준비한 공연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28일 오후 7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선 흥미로운 이야기 마당이 펼쳐진다.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전두환·노태우 체포 결사대 등 5월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험담을 들려준다.

대구에선 '대구에서 오월로'라는 강연 및 역사체험 기념행사가 경북대 학생 주관으로 준비됐고, 서울에선 김의기 열사를 추모하고 5·18을 소개하는 추모행사, 부산에선 '부마에서 광주로'라는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충북에선 철거 요구가 빗발치는 '전두환·노태우 동상 대안 찾기 워크숍'이 열린다. 이밖에도 아사히신문사 5·18 관련 기록물 특별전시, 광주기독병원 5·18 의료활동 사진전 등이 5·18재단과 기독병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묘지 추모객 맞이 분주 4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를 닦고 조화를 새로 교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사진 속 '김군' 주장 인물 나타나

## 지만원 지목 북한 '광수1호' 시민군…5·18조사위 진위 확인 중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1호'로 지목돼 오던 '김군'〈사진〉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위여부 확인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진위여부 결과는 아직 미정이며 이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군'은 1980년 5월 당시 자동소총이 달린 시위진압용 가스차인 페퍼포그차를 탄 사진 한장에 기록이 있을 뿐 광주시 남구 송암동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동안 보수논객 지만원(80)씨는 이 사진속 남성을 '광수1호'로 지목하고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했었다.

김군에 대한 행적을 알 수 없어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영화인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제작되기도 했다. 영화에서도 본인이 김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1980년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군은 송암동에서 계엄군에게 희생된 후 시신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5·18행방불명자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아내가 TV에 나오는 김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A씨 임을 확신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측은 5·18조사위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조사위는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18조사위는 A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사진속 인물은 나인데 송암동으로 갔다던 김군의 행적과는

다르다. 성씨도 김씨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위측은 A씨가 "당시 군용 트럭에서 페퍼포그차로 이동을 지시한 사람이 월남전을 다녀온 예비군 출신 시민군이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1980년 5월 22일 예비군 중대장 출신 시민군을 찾는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결과 일부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한 5·18조사위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조사위는 그러면서도 A씨가 소장하고 있는 젊은시절 사진과 김군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차례를 보냈지만, 모두 '판별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18 당시 '김군'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다른 시민군 생존자와의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일부 5·18유공자들은 김군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군동상 건립추진위 대표 최진수 (59)씨는 "A씨가 5월 23일 광주를 떠났다고 5·18조사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와 같이 5월 24일까지 지냈다"면서 "5월 24일 송암동에서 붙잡혀 계엄군이 김군을 쏘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군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강갑(65)씨도 "김군이 다른 시민군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송암동을 간 것은 확실하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행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진언 5·18조사위 대외협력관은 "조만간 있을 '5·18대국민보고회'에 김군 관련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김군' 송암동서 사망했다는데…

## 광주 남구, 11일 '5·18 포럼'…효천역 등 민간인 학살 조명

광주시 남구는 오는 11일 남구청에서 송암동·효천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명하는 '5·18 남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송암동·효천역 민간인 학살 사건은 시민군으로 참여한 '김군'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 5월 18~27일 송암동 일대에서 전두환 계엄군이 저지른 학살을 가리킨다.

외곽지역 봉쇄를 맡은 계엄군이 민간 버스·차량 등에 무차별 발포한 사건, 공수부대가 상무대 교도대 병력과 오인 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분풀이로 인근 마을 주민을 연행·학살한 사건이다.

남구는 이번 포럼에서 남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피해자 구술 채록, 문헌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진행은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전용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부교수가 각각 구술 채록·문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실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조선대병원 신축 '교직원 공청회' 열어

조선대병원이 낡은 건물과 병동 부족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병원 신축 공론화에 나섰다.

새병원의 구상안은 병상 수를 20% 늘린 1000병상 규모이며, 신축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조선대 정문 부지나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병원 쪽 부지 중 한 곳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3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새병원 신축 '교직원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법인 산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건립 추진 경과 ▲새병원 건립 필요성 ▲신축부지 검토(안) ▲새병원 건립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기본계획(안)을 교직원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대병원은 1971년 4월 15일에 개원한 이후 2007년 전문진료센터(2관)와 2017년 외래진료센터(3관)를 증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본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더 이상 병동을 늘릴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병원 내부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진료 편의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새병원의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은 "새병원 신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새병원이 무등산과 조선대 본관 건물등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